



공기업 포철이 강요한 여러갈래 인생

자산인수'라는 교묘한 수법을 통해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고용승계 의무를 거부하고 있는 포항제철의 변칙적인 정리해고에 맞선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의 상경투쟁이 100일을 넘기고 있다.

송철원

삼미특수강노동조합 고용승계 완전생략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지도위원

지난해 12월 16일 과도한 금융비용으로 자금압박에 시달리던 삼미특수강이 전체의 80%에 달하는 공장을 포항제철에 매각하기로 하였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노동자들의 운명은 갈라지기 시작하였다. 수년 전부터

철의 보석이라는 특수강 사업에 눈독을 들여오던 포철이 드디어 기회를 잡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여러갈래 인생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조합은 소식을 듣는 순간 2단계 매각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포철의 전근

대적인 무노조 방침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총 3개 사업부 중에 80%에 해당하는 강봉, 강관사업부를 인수하고 나머지 강관사업부도 인수하려 한다는 것이다. 물론 포철이 매각 발표 전부터 2월 17일 계약 체결까지의 매각 인수 과정을 만만하게 대응해 나간 것이 아니었다. 서상록 삼미그룹 전(前)부회장은 매각과 관련하여 “포항제철의 김만제 회장으로부터 ‘매입할 생각이 있으니 정부를 설득해 달라’는 말을 듣고 청와대 이석채 전경제수석, 박재운 전통산부 장관, 이형구 전(前)산업은행총재 등을 찾아가 매각문제를 상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전(前)수석들을 만났을 때 포철이 살 의사가 있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했다.

우리는 여기서 다음을 주목하였다. 지난해 11월 과도한 금융비용에 시달리던 기아특수강과 삼미특수강은 국가 기간 산업인 특수강 사업이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하고 투자부담이 막대하여, 포철처럼 정부의 지원(공기업으로 전환금을 받음)을 받지 않고는 살아날 수 없다며 금융지원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으나, 결국 거부당하고 청와대, 정부, 제일은행 등 채권단에 의해 삼

미에 포기하라는 압력이 가해지고 포철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 포철은 정리해고제 도입에 대한 대중적인 분노속에서 노동법 날치기에 항의하는 전국적인 총파업이 전개되는 상황에도 아랑곳없이 인수 수락 조건에 노동조합을 철저히 배제시키며, 조합원들의 고용승계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는 정부나 포철이 수십년간 국가기간산업을 떠받쳐온 노동자들을 기계보다 못한 하찮은 존재로 취급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었다. 겉으로는 기업의 매각인수 문제가 당사자들간에 처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체를 들여다 보면 청와대와 정부가 인위적으로 삼미의 매각과 부도사태, 나아가 고용문제를 처리하는 것에까지 개입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알 수 있다.

이는 최근 부도가 속출하자 급조되어 나온 정책으로 상당한 논란을 벌였던 ‘부도방지협약’ 사건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오죽하면 시중 여론이 삼미특수강의 부도와 진로그룹의 회생을 빗대어 ‘특수강은 죽이고 소주는 살리는가?’라고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나섰겠는가? 정부 정책이 얼마나 중심을 잃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라

**빠빠지게 일하면서도 참고 기다리라는 회사의 말에 늘 따라 왔건만
회사는 망하고 말았다. 조합의 경영참가 요구에 늘 경영은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 당신들은
일만 열심히 하라더니 결국 부도를 내고 말았던 것이다.**

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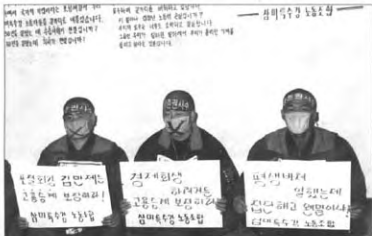
한편, 재산 실사와 매각인수 협상 과정에서 포철은 '사기 싫은 걸 억지로 사게 됐다. 안살 수도 있다'고 협박을 해대며 삼미의 자금압박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술을 썼다. 삼미의 서상록 전부회장은 사가 3,000억에 불과한 삼미특수강을 포철에 7,000여억원에 팔아서, 차액을 정치권에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1조원이 넘는 회사를 시세에도 못미치는 7,000여억원에 판 것도 억울한데 비싸게 팔아 넘겼다는 설은 말도 안된다"고 항변한 적이 있다. 포철은 삼미특수강을 7,194억원에 인수했다.

그러나 이런 양측 주장의 어느 한구석에도 노동자의 고용문제는 존재하지 않았다. 애초 회사측은 노동조합의 회사살리기 호소를 무시하고 '매각만이 살길'이라고 우겼다. 노동조합이 고용 승계, 노동조합 승계, 단체협약 승계를 요구하며 투쟁했지만 그 때는 이미 확정된 매각, 인수 조건은 요지부동이었다. 그저 매각을 해야 모두가 살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결국 매매 계약이 끝난지 한달도 채 못돼서 부도가 났으니 정말 한심해도 유분수가 아닌가? 부도가 터지자 삼미 경영진들은 포철과 채권단

에 당했다고 삼미 경영진들은 난리를 쳐댔다. 여기에는 사정이 있다. 매각에 조인하면 1,200억(제일은행 600억+ 산업은행 600억)을 주기로 구두합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포철과 매각 협상이 진행중이던 북미법인도 갑자기 없던 일로 해버렸다. 삼미와 포철간의 가격 차이가 커서 -삼미는 4,029억, 포철은 0~425억을 주장했다- 협상이 중단되어 버린 것이다. 그래서 부도가 났다. 이를 두고 항간에서는 최형우가 쓰러지고 현철이가 쓰러지니 삼미도 쓰러졌다고 했다. 이에 대한 해명이 없는 걸 보면 무슨 내막이 있기는 있는 모양이지만 아무도 모를 일이다.

분명한 것은 유해 위험작업현장에서 묵묵히 일해온 노동자들만 피를 보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빠빠지게 일하면서도 참고 기다리라는 회사의 말에 늘 따라 왔건만 회사는 망하고 말았다. 조합의 경영참가 요구에 늘 '경영은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 당신들은 일만 열심히 하라'더니 결국 부도를 내고 말았던 것이다.

매각과정에서 나타난 공기업 포철과 정부의 태도 또한 예외가 아니다. 물론 근본적인 원안제공은 이들이 한 것이다. 얼마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은 3월 25일부터 농성투쟁을 벌이고 있다.

전 언론에는 포철이 더 이상 국민의 기업이 아니라는 보도가 있었다. 국민들에 의한 국민주의 소유가 급격히 감소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필자는 포철이 공기업이 아닌 이유는 다름아니라 삼미특수강 인수시 고용승계 문제와 헐값 매수에서 보여준 파렴치한 경영윤리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다.

얼핏보면 삼미특수강의 문제가 마치 법률적으로만 따져 '형법의 포괄적인 양수도나?', 자산 양수도나?'를 가지고 '고용승계가 되는지 안되는지'가 쟁점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공기업의 사

회적 책임과 기업의 윤리적 책임, 인간의 존엄성, 노동자의 생존권의 문제로 보고 가정과 사회라는 공동체 파괴의 문제로부터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포철이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옛날과 똑같은 일을 시키면서도 평균 근속 15년이나 되는 노동자들에게 각서를 요구하고 수습사원 3개월 조치를 감수하라는 굴욕적인 신규채용 요구를 하는데 단호히 맞서 100여명의 조합원이 3차 상경투쟁 100여일을 맞이하고 있다.

삼성동 포스코 켄타 앞, 포철 김만제 회

“우리가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노? 저거들 시키는대로 다했다 아이가. 포철에서 우릴 싫어한다카든 노동조합이 있다는거 이유 하나 뿐인데…… 노동자한테 조합 만들어 갖고 권리를 쟁취하라키는 거야 법에도 있는 건데 그게 죄란 말이야?

장집 앞. 신한국당사, 정부 제1 2청사 등에서 강력한 항의 집회를 하였고 서울 시내 안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투쟁으로 눈을 뜨고 투쟁으로 날을 지냈다. 민주의 성지인 명동성당에서 21일간의 항의 단식 농성도 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고용승계를 거부한 청원특수강(삼미특수강을 인수한 후 포철 자회사로 법인설립)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놓고도 있다.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 투쟁의 나날을 지내는 것은 참으로 고통이지만 너무도 상식적이고 당연한 요구이므로 힘이 솟는다.

“정든 일터에서 그대로 일하게 해달라!”
이것이 그렇게 무리하기?

기업주가 버리고 간 공장을 살펴보고 임금채불을 참가가며까지 노력하지만, 포철이 원자재(핫코일)를 주지 않아 만나라에서 수입을 해와서 기계를 돌리고 있는 조합원들, 포철과 맺은 계약서에 따라 현대관 노비문서인 각서를 쓰고 근속 15년에 때아닌 수습사원으로 노동조합도 없이 포철의 감시를 받으며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 끝끝내 포철의 고용승계 거부로 인해 삼미에서 마침내 정리해고 당한 사람들, 강제사직 당한 사람들, 포철은 정경연 동료들에게 비수를 들이댄 강도처럼 어노날

나타나 우리의 정잡던 공동체를 파괴해가고 있다. 포철은 마침내 우리의 인생을 이렇듯 뺏아프게 잘라놓고 있다.

그러나 주야 구분없이 30여년 청춘을 다바치고 장년 퇴직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장기근속 조합원의 말에 귀 기울여보자. “우리가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노? 저거들 시키는대로 다했다 아이가. 포철에서 우릴 싫어한다카든 노동조합이 있다는거 이유 하나 뿐인데…… 노동자한테 조합 만들어 갖고 권리를 쟁취하라키는 거야 법에도 있는 건데 그게 죄란 말이야? 포철은 만나라놈들이야? 또 기업주가 경영 잘못된 일들과 우리가 다투기 쓰노? 이놈의 시상이 망할라꼬 그라나? 이럴 때 우리가 지면 안된데이. 이기가 된다. 그래할라문 절대 우리끼리 흠어지지말고 마음 독하게 묶고 싸와야 된다. 알겠나?”

“정리해고 박살!!” “고용승계 쟁취!!”

장마에 집어든 서울 하늘은 희뿌연기만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새로운 투쟁의 각오로 오늘을 시작하고 있다. ◆